

# 신발을 획 벗어놓듯 착을 두지 말고 놓으세요!

## 21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운 요량이 많이 달려 있어. 그런데 부모들은 지금 이렇게 시급한 학생들을 놔두고 그거 한마디 얘기 안 해 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거 뭐 돈이 들으니 못해요, 재산이 없어지니 못해요, 글썽, 자손들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너의 주인공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다 너에게도 불이 켜질 것이다. 이거를 그저 배우고 또 앞으로는 점점 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관해 줘야 정작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뜻이 가지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한테 연방 해 주고요.

어떤 사람은 하도 자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밥 먹는 테이블에도 불어 놓고 벽에도 불어 놓고 변소 안에도 불어 놓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거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자 했던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 보고 가니까 살면서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얼마뒤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어디 정말 되나 안되나 보자.'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해 주고 가져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시때때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보호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듯이 우리가 아무리 싫다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관해 주고 벽에 불어 놓고 한번 해 본다... 그건 진저리나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려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마음을 제대로 먹는다면 분란이 날 것도 앞서 대처해서 없애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자를 불성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참나가 있는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참나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여려한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여려한 줄 알았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하고,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일체 만법을 들고 내고 아무리 끝없이 해도 힘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야 구경경지에 이른다 이런 소리입니다.

##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문** 얼마 전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던 여행객들이 탄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평생 가 보지 못했던 곳을 좀 다니면서 노년을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인데 정말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거리를 움직일 때마다 부처님께 사고나지 않게 기도하면서 차를 타고 있

습니다. 스님,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내야 좋은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살아생전에 꼭 명심하고 유념해서 마음을 내야 할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가르침 주십시오.

**답**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기 이전에, 부처님께서도 진리를 탐구하셨고 그 진리를 깨치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기 이전에 꼭 명심하고 알아 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신 살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밥 먹고 똥

겨 있기 때문에 공체로서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전부 공체다. 우주가 달리 있고 지구가 달리 있고 우리 사는 게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더불어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 씩씩이는 자유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기다 써 달라고 돈을 가져 왔는데 내가 마음대로 만 데다 썼다고 합시다. 이런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서도 근본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라고 등한시해서 중요시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면 그건 내 탓이죠.

고 내서, 들고 내는 법을 굴려서 그 하나가 어디 있는가를 진정 알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굴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씩씩이에 달려 있겠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회개를 하고 거기가 다 뇌 버리고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굴려야 올바로 굴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트머리에 가서는 반드시 '네가 있다는 것은 네가 증명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전체가 모두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 둘이 아닌 도리를 여러분께서 잘 아신다면 정말 시ết말로 '됐다'죠. 견성만이 아니라

까요. 근데 산 사람이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거기가 일일하고 놓는다면 그대로 그냥 공용이 되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영령들도 그렇고 조상들도, 조상이 영령이죠. 그 영령들께서도 그렇고 우리도... 즉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살려면 이름을 붙여야 하죠. 그런데 인과성 영계성 유전성 업보성의 문제 등등이 입력되었다면 여러분께서 그 과보를 꼭 받고야 마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오신 불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누진으로 가게 되면 누진이 바로 여러분의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다 이런 소립니다.

이걸 잘 숙고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생활에도 좋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활활 타고 갈 것이니까요. 살아서 활활 타지 못하면 죽어서도 활활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자동적인 컴퓨터에서는 과거로부터 내가 한 대로 수없이 입력된 것이 나온단 얘기죠. 그래서 요다음에 죽어서 또 다시 나와도 그걸 짚어지고 나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쪽 못하고 그걸 받아야만 하겠죠.

근데 그 고를 얹어려고 한다면 나 온 그 자리에다 다시 놔 놓아 없애지 말고 그냥 없애면 없애질 수가 없어요. 컴퓨터에 들어간 입력은 다른 걸 넣어야 없애지지 다른 걸 넣지 않으면 없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라고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얼마나 고답합니까?

근데 사람이 모두, 자기가 살았다, 자기가 했다, 자기가 망했다, 자기가 흥했다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문제가 커지죠. 제가 말하는 게 말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관하는 거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죠. 종 문서를 얹어려고 종 문서를 들고 말기는데, 종 문서를 맡겨도 그냥 털썩 밀고 말기는 게 아니라 못 믿어서 왔다 했었다 왔다 했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 문서가 없애지려야 없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공생이다. 모두가 공심이다. 또 공체다. 공용을 하고 산다. 공식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 공식은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두 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들고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 모두가 하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만 불이 일 불이요 일 불이 만 불이라 만 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 불이 따로 있지 않다.' 즉 말하자면 일 불도 공해서 일 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일 불로 돌아간다는 것만 알아도 그거를 빨리 수습할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가정에 이익 되고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공부를 하면 저절로 화목해지고 저절로 의합해집니다. 또 나가서 안 들어오는 자식들도 다 들어오고 나가지도 않게 되고 자꾸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고 그렇게 하신다면 진짜 그렇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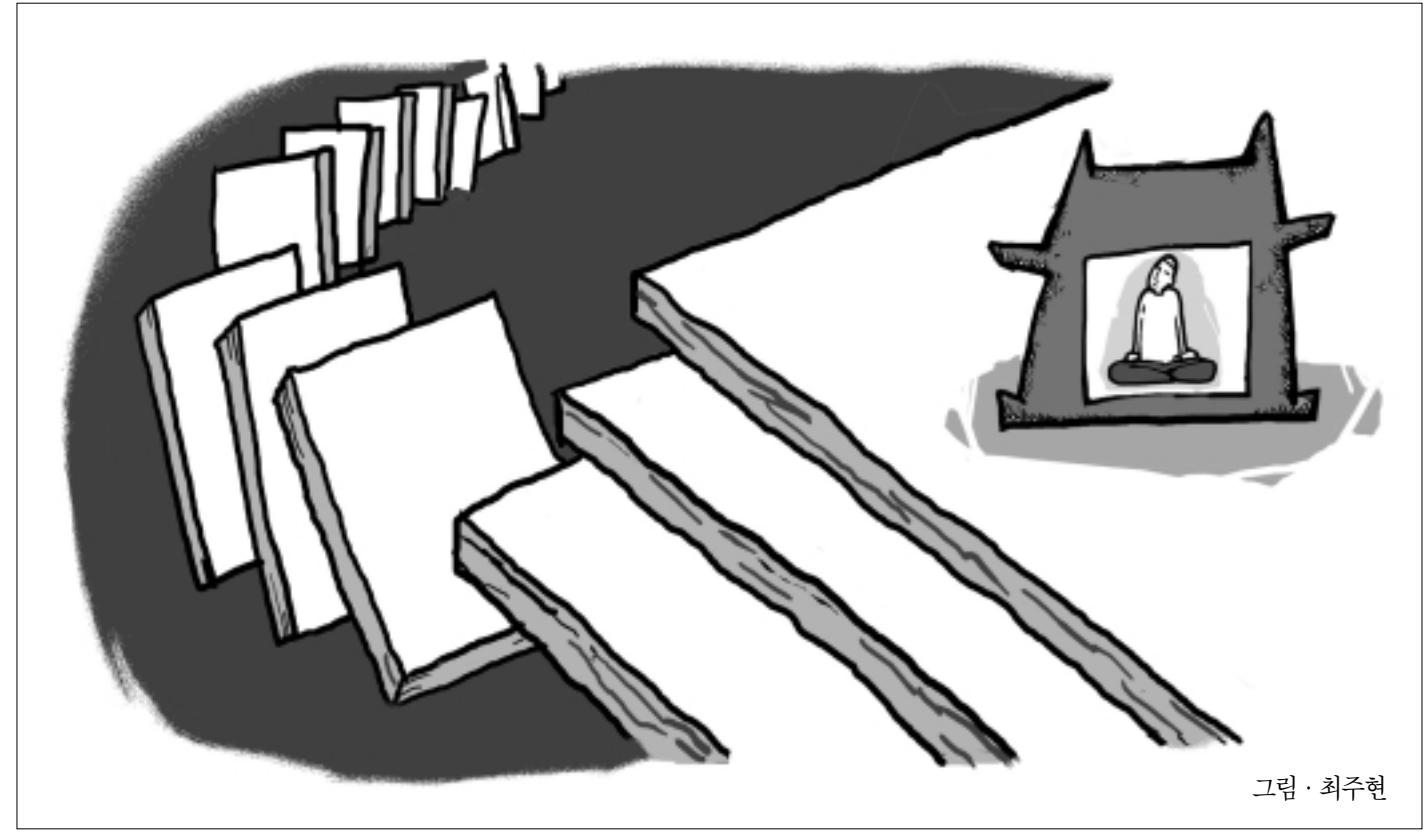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짜고 잡자고 죽는 것을 대신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린 이 지구라는 한 주머니 속에서 미생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북박북박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시죠? 그렇게 거기 한 주머니 속에서는 미생물 하나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속에서 개개인들이 모두 탄생됩니다. 우리가 생산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의해서 생명을 받고 정자 난자를 받아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인생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태어나는 그 까닭은 생명의 근본이 바로 거기에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만히 보세요. 지구의 공기주머니나 내 모습의 공기주머니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다들 리가 없다. 많은 생령체들 중에 하나가 바깥으로 뛰어나오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 주머니 한 주머니에 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도 없이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 갔다 놓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얼마 남았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불성이 알고 우주간 법계에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거짓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영통하게도 남을 고탈프게 하면서 돈을 긁어 모아 불사한다면 이것은 위법이죠. 단돈 얼마라도 진짜 내가 생각이 있어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공체로서 사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우주와 더불어 공생이면서 공심입니다. 그리고 공체입니다. 그리고 공용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공식하고 삽니다. 공식은 만법을 들고 내는데 하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 있는고?' 하고 옛날 선지식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만법을 들이

성불까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견성이다 성불이다 하는 것도 이름이지 그걸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연동부처님께서 "너는 이다음에 석가가 되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을 하신 분이 그분이요 그 말을 듣는 분이 그분이예요. 화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체로서 실현해 간다면 250억과 300억과 간에 계율을 일부러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낱낱이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윗분들도 돌아가시고 또 아랫사람들도 돌아가고 그래서 영가들이 많습니다. 산 분이 50%라던 영령들이 50%예요. 모르는 분들은 자기 고달픔에 힘들고 또 영령들은 몰라서 고탈프니까 힘들고, 자기가 모르는 탓으로 영령들도 모르죠. 죽으면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니

### 불국정사 수행 건강음식

구인사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 18년이 된 불자입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기 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으나, 불자가 되고 난 뒤, 기도 방식대로 관음 정진을 하였습니.

정진 중, 천태종 창건주인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 나타나서, 음식 조리 방법에 대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음식을 만들고, 식생활을 개선한 후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음식업)에서도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3년전, 대조사님께서 다시한번 나타주셔서 약초를 일러주시며 그 약초로 차를 달여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부터, 나의 몸은 20~30대 때의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건강한 음식과, 좋은 차로 종교와 종파에 상관없이 대중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이 안좋은 분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천태종 창건주인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뜻을 깨달아 불국정사를 이루어 부처님 법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께 알려드립니다.**  
**불국정사에 오셔서 수행 정진과 좋은 음식, 좋은 차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 금강좌 합장 -

서울 종로구 창성동 150-3 불국정사  
 전화 02)736-3091, 735-3268  
 011-9762-7949  
 팩스 02)3448-0661

### 건봉사 템플스테이 및 수련회 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처아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금강산 건봉사는 아미타 염불 만일 기도도량이자 임란당시 사명대사가 승군을 일으킨 호국도량입니다.

이 유서깊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건봉사에서 바쁜 생활에 지친 분들의 삶의 재충전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시**

- ▶ 1차 : 2007년 7월 27일 ~ 29일 (2박 3일, 일반인 선착순 30명)
- ▶ 2차 : 2007년 8월 10일 ~ 12일 (2박 3일, 일반인 선착순 30명)
- ▶ 참가비 : 70,000원
- ▶ 준비물 : 필기구, 운동화, 세면도구, 우산
- ▶ 입금계좌 : 농협 247-01-251767  
 예금주 : 건봉사 (입금 후 전화연락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봉사 중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033)682-8100~2, 011-9800-5798  
 팩스 033)682-5994

우)219-900 강원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지 합장**

###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본원에서는 "살기위주의 맞춤형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 목적**
  - ◇ 불교계 지도자의 정체성 확립
  - ◇ 설법을 잘 할 수 있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함.
- **교육 내용**
  - ◇ 인간관계에 필요충분조건인 **회소**(스피치 기법)
  - ◇ 상담과 설법에 필요한 **최면요법**
  - ◇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토의, 토론, 회의진행법 등
- **모집** : 수시모집  
 맞춤형 개인지도 8회 과정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 각 사암 등록 및 종도 모집 합니다

**행자, 동자(예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하며 넓은 도량에서 수행하여 미래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고원사에서는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행자 및 동자**

- 행자 : 55세 이하
- 동자 : 5세이상 ~ 12세 이하
- 문의 : 교무스님 010-4860-1824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중무원 고원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054)382-3397 / 054)464-4725